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 부문별 1차 소모임 [균형성장-농촌-재생] 부문 보고서 -

일 시	2026년 7월 30일(목) 18:30 ~ 20:30
장 소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03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성원보고	총 15 명 중 11 명 참석
참 석 자	진행위원 : 정남득(퍼실), 이미성(기록) 일반단원 : 황윤성, 이정우, 안상현, 변삼수, 신동역, 장복단, 이명례, 임세호, 하덕천 지원센터 : 홍윤경
미션 1. 부문별 단원 소개	
정남득 퍼실팀장	- 역할 및 활동 방식 ▷ 균형성장·농촌·재생 부문의 퍼실리테이터로서 첫 모임의 진행을 맡음 ▷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 열기 활동을 진행함 ▷ 포스트잇을 활용해 의견을 한눈에 공유하고, 비슷한 내용을 분류·수렴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끔 - 회의 진행 원칙 ▷ 포스트잇 한 장에는 한 가지 의견만 작성하도록 안내함 ▷ 단답형 단어보다는 다른 사람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5~7단어 정도의 문장형으로 작성할 것을 요청함 ▷ 딱딱한 도시계획 주제를 쉽게 풀어내고, 모든 참여자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둠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참여자들이 끝까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획의 추진과정을 지켜본다면, 시민들이 함께 만든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별도의 자기소개는 하지 않아, 발언 내용에서 확인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과 진행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함.
	사 진 

김미성 기록팀장	- 참여 동기 ▷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며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어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새롭게 바뀌는 청주시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주에 거주해 현재 약 23년 됨 ▷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 과거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음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음 - 관심 분야 ▷ 도시재생, 교육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청주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함
사 진	
황윤성	- 참여 동기 ▷ 청주가 좋아 대학 진학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주에서 살아갈 계획임 ▷ 청주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20세에 충북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청주에 와 약 16년간 거주함 ▷ 충북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청주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이직함 ▷ 현재 봉명동에 거주하며 아파트 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음 - 관심 분야 ▷ 도시계획, 아파트(부동산)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진짜 시민이 원하는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람 ▷ 여러 단원의 의견을 들으며 좋은 아이템과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함

사
진



- 참여 동기

▷ 퇴직 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지역 봉사를 이어가며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 실제 나이는 67세이나, 출생신고가 늦어 호적상 나이는 64세임
- ▷ 서원구 남이면에 거주하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님, 48년 거주
- ▷ 경기도 안성에서 약 20년간 직장생활을 했으며, 청주에서 출퇴근하거나 직장 숙소 생활
- ▷ 퇴직 직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첫해에는 감사를 맡았고, 현재는 주민자치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함
- ▷ 남이면의 12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
- ▷ 남이 「황금길」 소식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소식지 배부방식을 개선 중
- ▷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소규모 고추농사를 짓고 있음



이정우

- 관심 분야

▷ 도시재생, 농촌재생, 농촌활성화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제안내용이 반드시 성사

사
진



안상현

- 참여 동기

- ▷ 서울에서 생활한 뒤 청주로 돌아와 도시환경과 시정에 관심을 갖게 됨
- ▷ 구도심을 다니며 청주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자주 고민함
- ▷ 청주 관련 신문을 꾸준히 구독할 정도로 시정에 관심이 많아 시민계획단에 참여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 1969년생이며 괴산 출신임
- ▷ 청주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취업해 서울에서 약 25년간 생활함
- ▷ 2019년 말 복대동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으며
- ▷ 청주 거주기간은 통계상 약 12년임
- ▷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괴산 농막에서 이틀 정도 머무는 '3도 2촌' 생활을 하고 있음
- ▷ 고추농사를 시도했으나 2년 만에 정리하고 현재는 매실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음

- 관심 분야

- ▷ 교통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음
- ▷ 도심 재개발과 원도심 슬럼화 방지 대책에 관심이 있음
- ▷ 청주시의 도시환경과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자신의 작은 의견이 청주시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불씨가 되기를 바램
- ▷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데 작은 밑알이 되기를 기대함
- ▷ 관련 자료를 준비하며 시민계획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함

사
진



변삼수

- 참여 동기

▷ 농촌·재생에너지·균형성장 분야에 관심이 있어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 청주시 내수에 거주하며, 지난해 환갑을 지남
- ▷ 청원 50년, 청주청원통합 10년 → 60년
- ▷ 중견기업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40대에 임원으로 승진한 뒤 퇴직함
- ▷ 현재 도소매업과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음
- ▷ 60대에 내수에 약 4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함
- ▷ 딸기 시범재배를 마친 뒤 현재는 상추를 재배하고 있음
- ▷ 태양광 부지를 개발·분양한 경험이 있음
- ▷ 내수복지회장, 기업인협의회 활동, 통합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음

- 관심 분야

- ▷ 흙의 특성 연구와 스마트농업
 - 새로운 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스마트팜을 조성해 딸기를 시범 재배함
 - 비와 바람에 대응하는 시설관리와 농약·영양제 공급 등을 자동화
 - 딸기 재배 이후에는 물과 영양제를 활용해 상추를 재배하고 있음
 - 상추는 먹기 전 30분 전에 물을 주면 부드러워 짐
- ▷ 태양광·재생에너지
 - 태양광 부지를 개발·분양한 경험이 있음
 - 태양광과 수소차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음
- ▷ 새로운 기술과 얼리어답터 성향
 -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남들보다 빠르게 이용하는 편임
 - 신차의 사고 회피와 안전기능 등 기술 발전이 사람의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에 관심이 있음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여러 차례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
- ▷ 현실성 있는 생각

사
진



신동역

- 참여 동기

- ▷ 청주에서 약 60년간 살아오며 청주의 발전과 미래상에 관심을 가져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 농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의 미래계획에 의견을 보태고자 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 옥산에서 수도작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청주에서 약 60년간 거주함
- ▷ 현재 옥산 남촌에서 농업회사법인 대한본(주)을 운영하고 있음
→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밀웜/고소애)를 배지로 활용해 동충하초를 생산하고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음



- 관심 분야

- ▷ 청주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며,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라는 관점에서 농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함
- ▷ 옥산면 소로리가 세계적으로 오래된 법씨가 출토된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기능성 쌀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포부도 있음
-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농업을 활용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램
- ▷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 조성에 관심이 있음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옥산에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한 체험·교육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함
- ▷ 이러한 아이디어가 청주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농도시의 미래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사진



장복단

- 참여 동기

- ▷ 청주시의 시급한 현안을 고민하고, 그동안 활동해 온 하천 준설·정비 의견을 제안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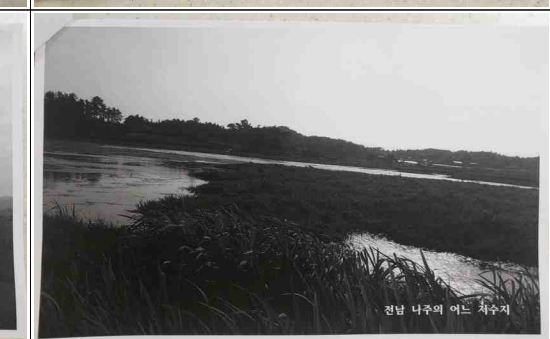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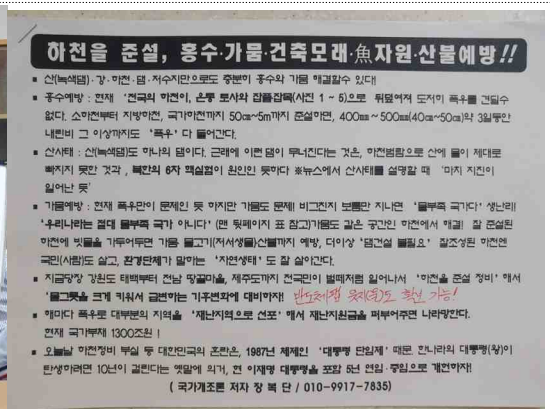
- ▷ 1962년생이며, 2018년 1월 경기도 구리에서 청주로 이사해 거주하고 있음
- ▷ 하천 준설을 통한 홍수·가뭄 예방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음
→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된 하천 준설 관련 자료를 직접 작성함

- 관심 분야

- ▷ 하천 준설과 정비를 통한 홍수·가뭄 예방
 - 강내면 수석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오송 지하차도 문제 등을 보며 하천 준설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봄
 - 하천에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면 집중호우 시 물을 받아내고, 가뭄 시에는 저장된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댐의 물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는 하천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확보 및 지역자원 활용
 -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데 하천 준설이 도움
 - 하천을 적절히 정비하면 건축용 모래와 수산자원 확보에도 도움
 -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주변 산천초목을 적셔 산불 예방에도 도움
- ▷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 문제
 -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의 쓰레기가 지역으로 반입돼 처리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함
 - 충남 사례처럼 쓰레기봉투를 확인해 반입금지 품목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 청주시 수도요금 문제
 - 충주댐과 대청댐이 충북에 있는데도 청주시의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느낌
 - 노후 상수도관 교체비용이 수도요금에 반영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타 지역에는 물을 더 비싸게 공급하고 청주시민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청주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도요금 운영에 융통성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봄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소통을 잘해서 하천 준설 성사시키기



이명례

- 참여 동기

▷ 청주(오창)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 청주에서 67년간 거주함
- ▷ 1978학번으로 청주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과정을 거치고 시간강사로 활동해 약 20년간 학교와 인연을 이어옴
- ▷ 겸임교수까지 약 30년간 대학생들을 가르침
- ▷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 문학박사이며, 신문 기고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
- ▷ 오창에서 이장, 주민자치 부회장, 1,600세대 규모 아파트 회장, 청주도시공사 이사 등으로 활동

- 관심 분야

- ▷ 문화·여가공간 부족
 - 대전에 비해 청주는 공원·박물관·도서관·휴식공간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함
 - 청주에 카페가 많은 것도 시민들이 여가시간에 갈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
- ▷ 오창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 (계획적 개발)
 - 청주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5년 안에 100만 자족도시 발전 가능성
 - 오창이 단순한 주거·산업지역을 넘어, 은퇴자와 외부 인구가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문화·여가·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필요
 - GTX·전철 등 광역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오창과 청주의 정주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시민들이 시간을 들여 제안한 내용이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람
- ▷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추진되기를 기대
- ▷ 청주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람

사
진



임세훈	- 참여 동기 ▷ 시민주권 실현과 청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안내를 보고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1995년생 청주 토박이임 ▷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음 - 관심 분야 ▷ 국가·지역·세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음 ▷ 다른 단원들이 제시한 여러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에 공감하며, 평소에도 관련 문제를 고민해 왔음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서로 나누기를 바람 사 진
하덕천	- 참여 동기 ▷ 생활 기반이 된 청주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생각을 다른 시민들과 나누고자 참여함 ▷ 계획을 수립하며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청주 거주기간 및 하는 일 ▷ 고등학교와 대학은 청주에서 다녔지만 거주한 경험은 없으며, ▷ 2012년 서울에서 내려온 뒤 금천동에 회사를 두고 ▷ 생활의 대부분을 청주에서 보내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 농어촌재생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함 - 관심 분야 ▷ 도시재생과 농촌재생 / 사회적경제 / 지역공동체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캐비닛 속에 묻히는 계획이 되지 않고, 시민들이 제안한 좋은 의견과 계획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시행되기를 바람.

사
진



미션 2. 부문별 주요 현안 공유

현안	제안자	세부 내용
1. 균형성장과 광역도시 경쟁력	황윤성	- 대전·세종과의 관계 설정과 자족도시 위상 확보 ▷ 청주는 주변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인접 ▷ 청주가 어떻게 이 광역적 위상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 → 세종 : 민선 9기 들어서며 행정수도 완성 추진 → 대전 : 과학도시로 R&D 연구개발 기능 강화 ▷ 세종과 가까운 위치가 청주의 성장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함. ▷ 이에 따라 청주가 대전·세종의 배후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인구를 보유한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고 제안함
	임세훈	-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완화 및 생활SOC 확충 ▷ 복대2동은 빌라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재개발이 원활하지 않은 구도심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신도심과의 생활환경 격차가 큼 ▷ 도서관 등 기존 시설은 고령주민의 실제 이용이 적어, 지역 수요에 맞는 체육·복지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지만, 주거지가 밀집해 체육센터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청은 옛 복대초등학교를 체육센터가 아닌 교육문화복합시설인 ‘(가칭) 꿈꾸는체험교육원’으로 새단장하고 있어, 주민들이 요구한 체육센터 활용은 어려운 상황임 ▷ 구도심의 접근성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신도심과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노후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유지와 고령층 중심으로 구성돼 다양한 세대와 현장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청년과 실제 생활현장의 목소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재생	안상현	- 지구·동 단위의 특색 있는 거점별 도시재생 ▷ 청주의 주요 대로변도 큰길에서 10m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노후한 주거지와 상권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민간에서는 재건축을 안하고 있고, 시에서는 성안길 중심의 청년 창업·여가시설에만 집중 ▷ 지구단위, 구나 동 단위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지역마다 차별화된 재생 방향이 필요하다고 봄 → 성안길은 보행자거리와 젊은 층의 데이트공간 → 복대동은 아파트 건설 중심의 개발보다는 근린공원을 활용 “주말에는 야시장 하고 평상시에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복합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안상현	- 시설 조성 이후 유지·보수·관리체계 강화 ▷ 청주는 시설을 조성한 뒤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자전거도로·가로수·화단 등 기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새로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유지·보수·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황윤성	- 노후주거지 정비와 주변지역의 통합적 재생 ▷ 청주는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앞으로는 도시 내부의 노후주거지 정비가 중요하다고 봄 ▷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은 해당 아파트 단지만 개선되고, 주변의 노후 상권과 기반시설은 그대로 남는 점 단위 사업에 머무르고 있음 ▷ 재건축 이후 외부 자본이 유입되고 주변 상가·공원·노후주택이 정비되기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함 ▷ 개별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주변 상권·공원·도로·노후주택 등 인프라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김미성	-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용과 운영방안 마련 ▷ 문화제조창, 영운동, 운천·신봉동, 내덕동, 우암동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 가운데 활용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시설이 있다고 지적함 ▷ 국비로 조성했더라도 운영이 되지 않는 시설은 이후 지자체 세금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부담과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점시설들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제안함

2.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재생	임세훈	-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재생 ▷ 가구별 차량 보유가 증가하면서 주거단지의 주차난과 주차관리 문제가 심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 ▷ 골목마다 CCTV나 스마트 보안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치안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방범시설을 확충해야 함 ▷ 골목상권이 일반 임대상가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돼 있으므로, 상가와 골목환경을 도시재생계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3. 농촌문화·관광 과 도농복합형 휴양공간	변삼수	- 청주공항의 관광자원화 ▷ 내수는 청주공항과 군사시설로 인해 항공고도 제한과 소음피해 등 여러 제약을 받고 있음 ▷ 공항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가 바꾸지 못할 공항인데 그럼 공항을 어떻게 자원화시킬 거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 <u>내수 생활체육공원 일대 문화시설·카페·개폐형 관람공간 조성</u> → 비행기 이착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항공기 관람공간과 카페 → 돔라이트 형태의 개폐형 관람시설을 설치해 항공기 운항 시간에 맞춰 지붕을 열고, 비행기 이착륙을 하나의 쇼처럼 관람 ▷ 비행기와 공항을 지역의 불편시설로만 보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특색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정우	- 도농복합형 휴양공원 조성 ▷ 청주에서 가족이나 방문객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갈 만한 공간이 부족하며, 농촌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 ▷ 남이면에 위치한 안심사는 국보도 있고 건물도 있고 문화재도 있는데 아무런 발전이 안 돼 있다고 설명함 ▷ <u>안심사 주변 도농복합형 휴양공원 조성</u> → 안심사와 주변 지역을 공원화해 시민이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 → 공원 운영과 연계한 체험·판매 등 주민자치회 수익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함 ▷ 안심사의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활용해 ‘청주의 관광명소’로 만들고, 농촌재생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함

3. 농촌문화·관광과 도농복합형 휴양공간	이정우	“모두의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제안명: 안심사 농촌재생 조성사업 제안자 균형성장,농촌,재생팀 이정우 1. 제안취지 안심사 진입로 공원과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서원생활권 남부의 역사,문화,생태거점을 조성하는균형성장 전략이 다. 주차장확충, 진입부 경관개선, 공원과, 보행환경정비를 통해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고 생활권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복합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 다.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의 균형성장, 농촌재생, 생활권중심 발전 목 표에 부합하는 대표 사업이 될것이다. 2. 배경 천년고찰 안심사는(신라해공왕775년) 청주의 남부권 남이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안심사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는데에도 그 가치를 아 는 이가 많지 않다. 그곳은 남부권인 남이면이 지닌 역사성이 있는 국보,보물,문화재가 있으면서 명소가 되지 못한 것은 소외된 지역으 로 볼 수밖에 없으며 남이면 중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안심사를 농촌재생사업의 대표축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3. 연계성 1) 서원구지역의 도농 역사, 문화교류 거점지역으로 육성 2) 소외된 남부권의 복합휴양공원 육성 3)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체험교실상시운영등) 4)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시 수익사업 창출 (카페, 음식점, 농산물판매, 주민휴게소등의 운영) 5) 정기적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6) 청주 상당산성 ----> 청남대 ----> 안심사 순환관광 4. 균형성장 실현 현재 : 도심시설집중 ----> 농촌인구감소 ----> 농촌 활성화 약화 ----> 유동인구 감소 재생사업시 : 농촌지역소외탈피 ----> 정주민구유입 ----> 유동인원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창업등 선순환구조로 전환 추후계획 : 주민자치회와 공동목표실현 ----> 농촌종합복지타운 개설 (수익사업실현) 5. 생활권과의 상생발전 주민들이 쉽게 방문하는 생활권 공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증가로 도농지역간 교류 활발 도심 --> 안심사(공원) --> 지역식당 --> 농산물구매 --> 귀가라는 소비동선 구축 6. 기대효과 1) 안심사 방문객 증가 2) 지역 농산물판매 활성화 3) 주민일자리 창출 4) 청주시 대표 관광명소 육성 5) 체류형 관광활성화 6) 주민자치회 수익창출 모색 계획부지 남이면사동리 269-2 4,230㎡ 외 약 1,000㎡ 계 5,230㎡ (1,584평)
	신동익	- 청주형 농촌문화 쉼터와 체험공간 조성 ▷ 청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외부에 내세울 만한 뚜렷한 농촌문화 테마와 체험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농촌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공간을 조성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음. ▷ 농업 체험·먹거리 교육·건강·휴식 기능을 결합한 ‘농촌문화 쉼터’를 조성해 청주만의 농촌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 이를 도농상생과 농촌 활력 증진, 외부 방문객 및 인구 유입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4. 수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 연계와 지역활력 창출	장복단	- 하천 준설과 정비를 통한 홍수·가뭄 예방 ▷ 강내면 수석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오송 지하차도 문제 등을 보며 하천 준설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봄 ▷ 하천에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면 집중호우 시 물을 받아내고, 가뭄 시에는 저장된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댐의 물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는 하천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장복단	-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확보 및 지역자원 활용 ▷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데 하천 준설이 도움 ▷ 하천을 적절히 정비하면 건축용 모래와 수산자원 확보에도 도움 ▷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주변 산천초목을 적셔 산불 예방에도 도움
	장복단	- 충북의 수자원을 고려한 수도요금 개선 ▷ “댐은 충북지역에 있는데 수도세는 제일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함 ▷ 충북이 댐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토지와 지역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높이고 청주시민의 수도요금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함
	신동역	- 미호강 준설과 생태하천·관광자원 조성 ▷ 2023년 옥산 남촌·오송지역과 최근 강내지역의 침수 사례를 고려해, 홍수 대응을 위한 미호강 준설이 필요함 ▷ 준설과 함께 하천 주변 유희공간과 파크골프장 등을 연계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함 ▷ 하천 주변에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재배해 볼거리와 관광자원을 만들고 방문객 유입으로 연결함 ▷ 시니어가 경관작물 재배와 관리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마련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함 ▷ 적은 비용으로 재해 예방과 생태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해 “건강한 도시 청주”, “관광도시 청주”, “농촌문화의 쉼터 공간”을 조성함 → 복합적인 도시효과 창출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주 대표축제와 야간활력 창출	변삼수	- 기존 축제 운영의 한계와 재구조화 ▷ 청원생명축제는 청원군 시절부터 이어진 농업 중심 축제이지만,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방문객은 감소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음 ▷ 소고기·애호박 등 농산물 판매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넓은 축제장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함 ▷ 최근 전국 축제가 야간경관과 빛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청원생명축제도 빛·야간경관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거나 청주 대표축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주 대표축제와 야간활력 창출	안상현	- 컨셉 중심의 청주 대표축제 개발 ▷ 축제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는 분명한 컨셉을 중심으로 기획해야 함 ▷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막걸리축제처럼 ‘막걸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국 업체와 방문객이 참여하는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와 유튜브 확산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함 ▷ 무심천 벚꽃, 청원생명쌀, 세종대왕 등 기존 지역명·특산물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여수 밤바다’처럼 청주를 떠올릴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와 콘텐츠가 필요함 ▷ 특히 젊은 층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축제를 활성화해 청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이 청주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경험하도록 해야 함 ▷ 공무원 중심의 반복적인 축제 기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홍보방식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명례	- 미호천(강) 개발과 청주를 대표축제 조성 ▷ 청원생명축제와 세종대왕축제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방문객 유입이 부족하고, 청주만의 차별화된 특색도 약함 ▷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지 돼요”라며, 진주 남강유등축제나 장흥 물축제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준설과 관리를 통해 미호천에 물이 충분히 흐르도록 하고, 옥산 일대를 포함한 넓은 수변공간을 공원과 축제장으로 활용 ▷ 야간조명과 경관시설을 조성하고 산책로·자전거길을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 ▷ 소규모로 나뉜 축제예산을 모아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청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조성하고, 관광과 지역소비로 연결할 필요
	안상현	- 거점별 야시장과 야간문화 활성화 ▷ 8시 넘으면 캄캄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야간에 머물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야시장과 문화거리 조성

	하덕천	- 면 지역의 식품 사막화 대응 ▷ 청주의 동 지역을 벗어나 면 단위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전보다도 교통이 더 불편한 그런 시골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음 ▷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렵고 대중교통도 불편한 어르신들은 먹고 싶은 식재료, 특히 냉동·냉장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큼 ▷ 이러한 문제를 “식품 사막화”로 제시하며, 식품 사막화에 대한 문제가 청주시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라고 강조함  “장 보려면 차로 20분”...읍·면 지역 고령층, ‘식품 사막화’ 피... www.hani.co.kr
6. 농촌생활 서비스와 도농상생	하덕천	- 농촌 생활서비스의 감소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면 지역의 인구가 줄고 주민들이 소재지나 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같이 떠나는 게 이발소, 슈퍼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서비스들이라고 설명함 ▷ 세탁소·이발소·슈퍼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가 줄어들면 주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생활서비스 부족이 다시 주민 이탈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임세훈	- 도농상생 프로그램과 농촌 유통·판매시설의 현대화 ▷ 농촌이 도시개발로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도농상생 프로그램 및 기관 구축과 현대화”가 필요함. ▷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 지원센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산물의 생산·판매와 시민 이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기존 농산물 판매장과 모종장터는 노천 판매, 냄새, 정돈되지 않은 환경 등의 문제가 있어 시설과 운영방식의 현대화가 필요 ▷ 판매·체험·교육 기능을 갖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농촌과 지역 농산물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변삼수	- 농촌 빈집 정비와 귀농·귀촌 지원 ▷ 농촌의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붕괴와 화재 등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철거와 정비가 쉽지 않음 ▷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일정 기간 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을 청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7. 농촌 고령화와 귀농·귀촌	변삼수	- 농촌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일자리 발굴 ▷ 농촌에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많지만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함 ▷ ① <u>경로당에 소형 파쇄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품을 가공</u> → 경로당마다 소형 펄트병 파쇄기와 압착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수집·가공하고, 판매 수익을 얻는 방안을 제안 → 청주시 노인회와 협약을 맺고 복지단체·자원봉사단체 등이 장비를 대여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 ▷ ② <u>단순 가공작업</u> : 멸치 내장 제거, 농산물 선별·손질 → 고령자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단순 가공작업을 발굴해 소득과 연계 ▷ ③ <u>해바라기 재배를 통한 체험형 수익사업</u> → 농지에 해바라기를 심고 사진촬영·아이스크림 판매·해바라기 수확·씨앗 판매를 연계하는 체험형 수익사업 ▷ 현재의 단기·야외 일자리뿐 아니라 냉난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남들 다 하는, 다른 도시가 다 하는” 사업보다 소소하더라도 신선하고 채택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주체와 운영방식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8.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공동체	항윤성	-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지원체계 마련 ▷ 봉명동의 경우 외국인 주민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초등학교는 외국인 학생 수가 과반이 넘어간 상태 → 봉명초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절반에 달해 다문화 교육정책학교(밀집학교)로 지정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이 청주 곳곳에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주시 외국인지원센터 하나 ▷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계절근로자 형태로 외국인 인력이 시기마다 유입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과 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외국인 주민의 생활지원과 지역사회 정착,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범죄 사례도 왕왕 발생
	안상현	-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화자원화 ▷ 봉명동 인근에 거주하고 외국인지원센터와 탈북민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실제 생활하면서 밤에 치안이 불안하거나 범죄가 많거나 그런 건 크게 못 느낀다고 설명함 ▷ 봉명동에는 우즈베키스탄·몽골·러시아계 주민과 이들이 이용하는 빵집 등 특색 있는 생활문화가 형성돼 있어, 이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안함
	정남득	- 외국인에 대한 획일적 인식 지양 ▷ 외국인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분리수거를 매우 잘하는 사례 소개 ▷ 쓰레기나 생활질서 문제를 특정 국가나 외국인 전체의 문제로 보지 말고, 어떤 나라의 문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함

8.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공동체	변삼수	- 외국인 주민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수용 ▷ 내수는 청원군 시절 가장 먼저 읍으로 승격된 지역 ▷ 현재 인구는 약 1만 8천 명 수준이며 최근 외국인 인구가 약 2천 명 포함되면서 인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내수에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주민들이 초등학교 운동장 등에서 국가대항 축구대회를 열고 있음 ▷ 외국인 주민에 대해 “어차피 이제 식구로 봐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배척할 수가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라고 강조함 ▷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인구 증가 요인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u>국가별 문화와 관계를 고려한 생활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u>
9. 수도권 폐기물 반입 제한과 지역환경 관리	장복단	-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 제한 ▷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충남에서는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봉투를 직접 확인해 반입금지 품목이 발견되자 일정 기간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 청주시와 충북도 공무원들도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함 ☞ 청주의 민간 소각업체가 서울 강남구청과 체결한 생활폐기물 약 2,300톤의 처리계약을 합의 해지함 ☞ 민간 위탁 폐기물의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약, 반입품목 점검, 위반 시 반입 제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시민계획단 활동 기록



단원소개 (1)



단원소개 (2)



단원소개 (3)



단원소개 (4)



단원소개 (5)



단원소개 (6)



현안의제 공유 (1)



현안 의제 공유 (2)



현안 의제 공유 (3)



현안 의제 공유 (4)



현안 의제 공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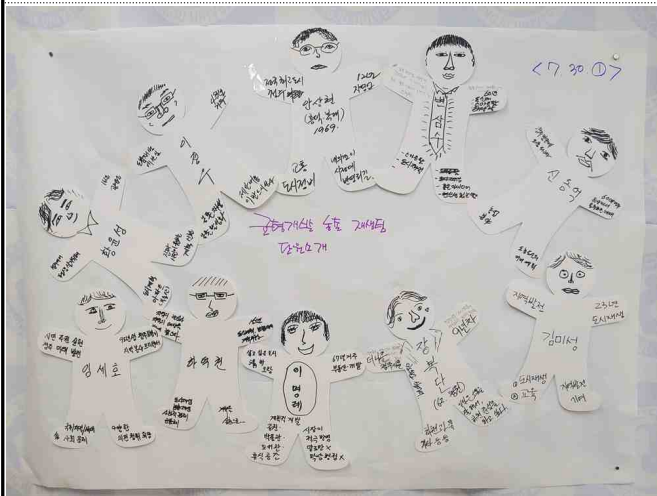
현안 의제 공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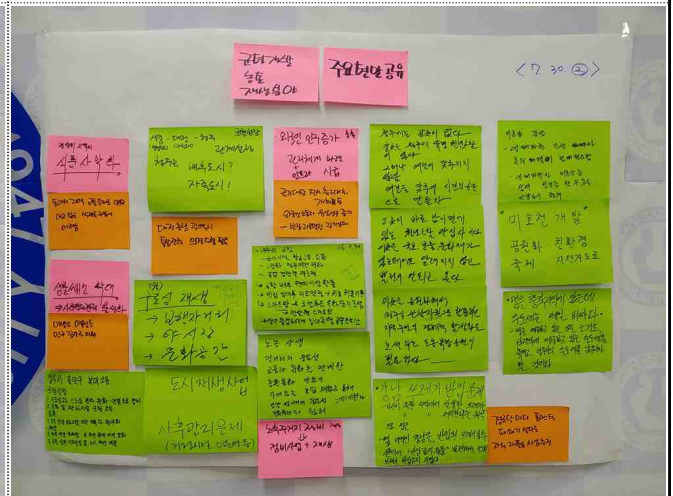
현안 의제 공유 (7)



현안 의제 공유 (8)



단원소개



현안의제



단체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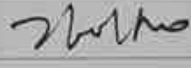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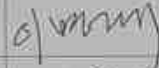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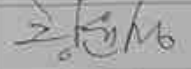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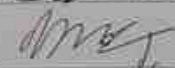
단체사진 (2)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부문별 1차 소모임 참석 명단

-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18:30
- 장 소 :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103호

[균형성장 · 농촌 · 재생] 부문

※ 부문별 팀 일반단원은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	접수번호	이름	생활권	진행위원	서명	
1	32	정남득	홍덕	퍼실텀장		✓
2	27	김미성	서원	기록팀장		✓
3	159	박정준	홍덕(오송)	미디어팀장		
4	46	이명례	청원(오창)	일반단원		✓
5	63	신동익	홍덕	일반단원		-
6	68	안상현	홍덕	일반단원		✓
7	74	최병석	상당	일반단원		
8	92	장복단	청원	일반단원		✓
9	104	임세호	홍덕	일반단원		✓
10	117	최재학	청원	일반단원		
11	122	김덕구	도심	일반단원		
12	129	황윤성	도심	일반단원		-
13	130	하덕천	상당	일반단원		✓
14	132	이정우	서원	일반단원		✓
15	174	변삼수	청원	일반단원		-